

# ‘학동 참사’로 무너진 것은 건물만이 아니었다

리뷰-추모극 ‘당달아 무너진 세상’

각 개인의 인생과 꿈 모두 붕괴  
과도한 신평 없이 희생자 애도

콘크리트 잔해 부서지는 소리, 뉴스를 중계하는 기자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공연장 한편에서 흘러 나오는 매캐한 연기는 참사 현장에 와있는 듯한 착각마저 준다.

버스정류장 벤치를 붙잡고 울부짖는 유가족 역할의 배우가 눈길을 오래 붙든다. 침통한 가운데 다섯 ‘망자’들은 윤림54번 버스에서 내려 관객들을 마주한다. 무대 위에 재현된 3년 전 학동 4구역 ‘학동 건물붕괴참사’ 풍경들이다.

지난 7일 오후에 찾은 광주 공동예술극장. 극단 ‘밝은밤’ (예술감독 한지성)은 학동 참사 3주기 추모극 리허설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이들은 학동 참사를 모티브로 만든 창작극 ‘당달아 무너진 세상’을 3년째 선보이고 있다.

학동 참사는 하청과 재하청, 불법 하도급 및 계획서를 무시한 철거 등으로 인해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산빌딩이 무너져내린 사고였다. 이로 인해 콘크리트 잔해가 정차 중이던 윤림 54번 버스를 덮쳤고, 사망자 9명과 부상자 8명 등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했다.

공연에 앞서 만난 임재민 연출가는 “작품을 무겁게 풀지 않기 위해 다섯 명 인물의 소시민적 에피소드에 집중했다”며 “지난해 선보였던 2주기 공연이 병원으로 실려온 환자의 영혼을 보는 ‘의사’ 시점으로 전개했다면, 이번에는 ‘문화부 기자’가 학동 참사를 취재하며 망자들을 위로하는 컨셉으로 구성했다”고 했다.

임 연출가는 희생자 유가족 양해를 구한 뒤 이들의 실제 사연 및 실명을 극에 일부 차용했다. 참사 당시 광주에 재학중이던 얀여담 고(故) 김명우 군은 이태영 배우가, 두 아이를 키우며 고통을 팔던 54년생 관운례 씨는 최혜민 배우가 열연했다. 30대 수의사 지망생 고(故) 김해찬 역은 정수린 배우가 맡았다.

극중 다섯 영혼은 이미 사망한 뒤라 기억이 없다. 작품은 이승희(유현진 분) 기자와 함께 죽음의 원인을 찾아 나서는 구성으로 전개된다.



광주 학동참사 3주기 추모극 ‘당달아 무너진 세상’ 공연 장면. 무대 세트인 학동중심사입구역 정류장을 배경으로 유가족 부모 역할을 맡은 배우가 열연하고 있다.

공연은 윤림 54번 버스 내부를 재구성한 무대에서 펼쳐졌다. 참사 공간에 직접 들어가는 기분은 통해 희생자의 아픔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사회적 재난에 대한 답문까지 사유해보자는 기획 의도다.

여기에 극적 효과를 더하기 위해 퇴직한 국어교사 최수혁(김주영)과 개인적인 이유로 산에 들어가 생을 마감하려 했던 김도하(이은샘) 등 창작 인물들을 추가했다. 희생자들의 오인 오색 에피소드를 윤니버스식 구조로 엮어 사회적 비극을 목도하게 했다.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들 ‘그림자극’으로 처리해 현재와 과거 인물이 경계를 오가도록 구성한 점은 인상적이다. 암영 처리는 로우 앵글 조명을 활용했다. 그림자가 웅장하게 보이는 극적 효과를 연출해 인물들의 과거사가 온전히 드러나도록 초점을 맞췄다.

인무 중인 배우를 관객이 촬영하는 등 적소에 배치된 관객참여 코너도 흥미 요소였다. 다만 100분 러닝타임에 비해 인물들이 서로 나이를 묻는 초반부 신원확인 서사 등은 다소 길다는 인상을 줬다.

한편 다섯 영령은 이승희 기자에게 “저희의 죽

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대신 세상을 바꿔달라” 부탁한다. 이에 대해 기자 역할을 맡은 주인공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는 생각을 견지한다. 작품을 보는 동안 학동참사 당시 현장에서 희생자 유가족 목소리를 듣고 심층취재 기사를 썼던 선배 기자들의 면면이 오버랩됐다.

‘당달아 무너진 세상’은 과도한 신평 없이 희생자들을 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했다. 그러면서 블랙핑크 곡 ‘Love sick girls’나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과 같은 밝은 분위기 노래를 삽입해 작품이 비극적 페이스로 치우치는 것을 방지했다.

‘당달아 무너진 세상’은 학동 참사로 무너진 것이 ‘건물’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환기했다. 사회적 참사로 인해 한 사람의 세상과 꿈이 모두 ‘함께 붕괴’한 것이다. 공연장을 나오며 한편에 조성된 추모 공간에 생화 한 송이를 두고 왔다. 극단 밝은밤 단원들은 참사 당일인 9일 학동중심사입구역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기도 했다.

연극 ‘당달아 무너진 세상’은 7-9일 미로극장 2관(옛 공동예술극장)에서 펼쳐졌다.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 모차르트 역작 ‘레퀴엠’ 아이들 목소리에 담다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정기공연... 14일 광주예술의전당

아이들의 순수한 목소리로 표현하는 모차르트 레퀴엠.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상임지휘자 권기원)은 제142회 정기공연 ‘모차르트 레퀴엠’을 오는 14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펼친다.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물론 광주시립합창단, 목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 광주CBS소년소녀합창단 등 총 170여 명이 함께하는 대규모 공연이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마련됐으며 ‘레퀴엠’(Requiem-장송곡)을 주제로 올려 퍼질 예정이다. ‘모차르트 레퀴엠 D단조 K.626’은 모차르트가 병상에서 마지막까지 작곡하다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제자 쾨스마이어에 의해 완성된 작품이다.

쾨스마이어 판본 외에도 ‘바이어’, ‘몬타’를 비롯해 하이든의 제자 ‘노이름’ 등 여러 판본이 전해

진다. 그중 쾨스마이어 판본은 장엄하면서도 숭고한, 섬세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잘 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권기원이 지휘를 맡았으며 소프라노 김순영, 알토 정상희, 테너 이재식, 베이스 노대산 등 솔리스트들이 출연한다. 이 밖에도 (사)카메라타전남 오케스트라가 참여해 순국선열을 기리는 멜로디를 들려준다.

권기원 지휘자는 “클래식계 마스터 피스 중 하나인 모차르트 ‘레퀴엠’을 아이들의 목소리에 담아낸다는 것은 마냥 쉽지 않은 작업이다”며 “대중음악이 일반화된 환경에서 이번 공연이 클래식 음악이 지닌 ‘예술적 가치’를 환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만 4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전석 1만 원. 티켓링크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가면 뒤에 숨겨진 외로운 자아 그리고 불안

이창훈 ‘도시의 삐에로’전, 7월 7일까지 광주예술의전당

현대인들은 외롭다. 본래의 자신을 잃어버렸다. 데서 오는 외로움을 수 있다. 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원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 오늘날 사회의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익명성이다. 자신을 노출하는 것보다 군중 속에서 사는 것이 안락하기 때문일터다.

이창훈 작가가 현대인들의 모습을 ‘도시의 삐에로’로 상징한 전시를 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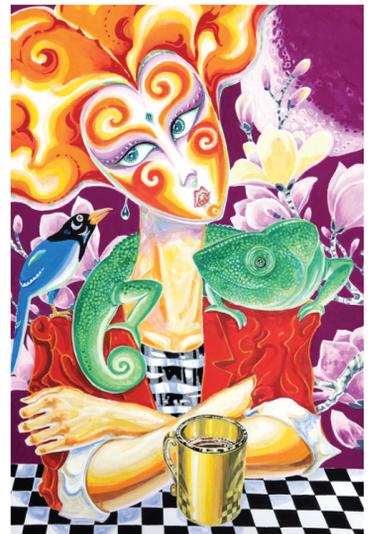
지난 7일 개막해 오는 7월 7일까지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에서 펼쳐지는 이번 전시는 삐에로를 초점화한다. 모두 30여 점의 작품은 웃고 있지만 내면은 허허로운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화면 속 인물들의 모습은 과장돼 있다. 헤어스타일, 옷, 미소와 표정 등은 원래 자신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브로치와 목걸이 등도 범상치 않다. 화려한 스타일의 복장과 모습은 역설적으로 외로움을 감추기 위한 몸부림으로 읽힌다.

전시 주제 ‘도시의 삐에로’가 주는 의미는 그리 간단치 않다. 누구인들 삐에로의 삶을 살고 싶은 이가 있을까 싶다. 그러나 복잡다단한 피로사회를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본래 자아를 숨긴 채 타자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일쑤다.

‘도시의 삐에로’가 주는 주는 화려함 이면에 드러워진 외로움과 쓸쓸함은 짙다. 작가는 욕망을 억누르고 살아야 하는 현대인을 특유의 색감과 감성으로 구현했다.

이창훈 작가는 “‘삐에로’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특징과 운명을 집약한



‘도시의 삐에로’

것’이라며 “내일을 향해 달려가기만 했던 분주함과 내면 깊이 침몰해 있는 외로움과 쓸쓸함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작가는 전남대 미술학과 졸업, 중앙대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졸업했으며 다수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함기석 시인 시담회, 14일 동구 인문학당

함기석 시인은 청주 출신으로 한양대 수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92년 ‘작가세계’로 등단해 시집 ‘오렌지 기하학’, ‘빨강 공원’, ‘작란의 돌’, ‘할베르트 고양이 제로’ 등과 동화집 ‘상상력학교’ ‘야호 수학이 좋아졌다’ 등을 펴냈다. 박인환문학상, 이형기문학상 등을 수상한 역량있는 시인이다.

시집 ‘할베르트 고양이 제로’ (민음사)는 시인만의 독특한 언어와 일상의 풍경을 이색적인 관점으로 다룬 작품집이다. 또한 ‘모든 꽃은 예언이다’ (걷는 사람)은 문득문득 찾아오는 슬픔의 궤적을 서정적으로 형상화한 시집이다.

함기석 시인의 시담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오는 14일 오후 6시 30분 동구 인문학당에서 열리는 이번 시담회는 향긋한 시가 있는 이야기의 장이다. ‘봄날의 시’가 주최하는 이번 시담회는 박순원 시인이 대담절의로 참여한다. 시담회 이후에는 간담회 및 뒷풀이가 진행된다.

동명동에 소재한 동구 인문학당은 지난



1953년 지어졌으며 한식, 양식, 일식이 혼재된 가족이다.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변모돼 동구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강보선 동구 인문도시정책과 담당자는 “동구는 전문가 뿐 아니라 주민들이 인문학을 편하고 의미있게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지원하고 있다”며 “인문동아리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프로그램을 매개로 인문 관련 창작과 교류가 활성화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전통 장문화·장독대 중요성 모색 한국전통장보존연구회 11일 포럼

전통 장문화와 장(醬庫·장독대)에 대한 보존의 중요성을 모색하는 학술포럼이 오는 11일 오후 2시 담양 창평면에 위치한 한국전통장보존연구회 회의실에서 열린다.

담양군이 후원하고 (사)한국전통장보존연구회가 주관하는 이번 포럼 주제는 ‘전남과 장흥고씨 양진재 종가의 장문화’.

식전 행사로 장흥고씨 양진재종가의 장 전시 및 시음을 할 수 있다.

포럼 1부는 기순도 이사장의 개회사와 前한국문화재단 이사장이자 담양문화재단장 진옥섭 대표이사가 축사를 맡는다.

2부에서는 이종미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의 ‘장문화의 전통과 활용’에 대한 기조강연 등이 진행된다.

3부 종합토론에는 주인택 전라남도 문화재위원이 좌장을 맡고, 고대희(전라남도 문화재위원), 이원희(광주여자대학교), 이윤화대표(식품콘텐츠 전문가인 다이어리 대표), 조미순(역사문화콘텐츠 선임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 국제보청기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